

새싹포커지 8월호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지 2013년 08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3학년 보육실습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3학년 학생들의 보육실습이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지원한 어린이집에서 실습했다.

학생들은 실습기간 동안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부분수업, 연결수업, 전일수업을 진행하였다. 또

한, 유아들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관찰하였다. 학생들은 매일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일지를 작성하여 하루를 돌아보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으며 무사히 보육실습을 마쳤다.

2013년 여름 학위수여식



2013년 8월 학위수여식의 모습이다.

2013년 8월 23일, 우송대학교에서 1년 4학기를 실시한 이래 두 번째로 졸업생들을 위한 학위수여식이 우송예술회관에서 10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은 학사모와 학사가운을 입고 들뜬 모습을 보이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근황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방학인



금창희 학생이 총장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선 모습이다. 데도 불구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온 후배들의 모습도 보였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교수님과 사진을 찍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대부분이 조기졸업과 취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인으로서 유치원 교사로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대상 영속성



아기들과 놀아줄 때 흔히 ‘까꿍 놀이’ 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까꿍 놀이는 엄마와 아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로 엄마가 수건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엄마 없네! 우리 아기 어디 갔니?” 하며 숨는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를 찾으려고 하고 이때 엄마가 살짝 얼굴을 보여주며 “까꿍!” 하고 말하면 아기는 좋아서

웃는다. 엄마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가 보여주는 까꿍 놀이를 반복하면서 아기들은 ‘대상 영속성’ 을 갖게 된다. 대상 영속성이란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다. 감각운동기 초기에는 영아가 대상 영속성에 대하여 잘 모르나 대략 4~8개월 무렵에 이르러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대상 영속성은 영아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각운동기에 획득되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18개월이 지나 두 돌 정도까지는 아기가 대상 영속성을 확실히 갖게 되는 시기로 지금 눈에 보고 있지 않던 물건이 없어져도 찾을 수 있게 되고, 생각하고 물건이 놓여 있는 곳을 알게 된다.

유치원 임용 고시

<p>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p> <p>수험번호 : () 성명 : ()</p> <p>(1) 고시 목적별 과목 분포 (2) 고시 일정 (3) 시험장 (4) 1차 시험 (5) 2차 시험</p> <p>1. 시험 목적 2. 시험 일정 3. 시험장 4. 1차 시험 5. 2차 시험</p>	<p>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p> <p>수험번호 : () 성명 : ()</p> <p>(1) 고시 목적별 과목 분포 (2) 고시 일정 (3) 시험장 (4) 1차 시험 (5) 2차 시험</p> <p>1. 시험 목적 2. 시험 일정 3. 시험장 4. 1차 시험 5. 2차 시험</p>
--	--

2013학년도 유치원 임용 고시 1차 시험인 교직 논술, 교육 과정 기출 문제이다.

유치원 임용 고시의 목적은 합리적인 출제 과정을 통해 양질의 문항을 개발·출제하여 유치원,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교사 임용 전형자료를 제공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근거하여 시·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 하에 실시한다.

임용 고시는 1차 시험에 통과한 후 2차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 유치원 임용 고시의 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이다.

교직논술은 교육의 기초,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 철학,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통계·연구, 교육행정, 교육사회 등 약 15개의 분과 과목 중 1 문항으로 원고지에 1,2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논술형이다. 배점은 20점으로 60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총론, 지도서, 누리과정의 영역(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과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정A와 교육과정 B가 있으며 배점은 80점으로 두 유형이 16 문항 내외의 기입형, 서술형 문제로 유형 별로 70분씩 나누어 140분 동안 시험이 진행된다.

2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 학습, 과정 안 작성, 수업 실연으로 2차 시험에 대한 과목별 배점, 문항 수, 시간 등 세부사항은 시험시행 공고 시 안내받게 된다.

2013년부터 유치원 임용 고시 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뿐 아니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자격증도 포함된다. 즉, 이전에 가산점 부여로 인정되었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자격증이 응시 자격으로 바뀐 것이다.

가산점의 경우 각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 칠 지역의 교육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보통 워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기술사(정보관리, 전자 계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 계산조직응용), 토익(점수별), 한자 3급 이상의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채점된다.

유치원 임용 고시는 범위가 넓고 외어야 하는 과목이 많아 어렵고 경쟁률도 높다고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올라 온 기출 문제도 열심히 풀면서 충실하게 임용 고시를 준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용고시를 도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보길 기대한다.

우송유치원 소식

대전 유아교육진흥원 견학

2013년 8월 6일, 우송유치원 만 3, 4, 5세 유아들이 다함께 대전 유아교육진흥원에 견학을 다녀왔다.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해보았으며 유아들의 기본적인 신체

발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았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익힐 수 있었고 이번 견학을 통해 유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외식



유아들이 빙수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8월 9일, 우송유치원 만 3, 4, 5세 유아들이 밖에서 외식을 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만 3세 반은 근처에 있는 오니기리와 이규동에 가서 규동 또는 우동을 먹었고, 만 4, 5세 반은 학교 안에 있는 솔파인 레스토랑으로 가서 스파게티, 간pong기, 규동 등 중식, 일식, 양식을 선택하여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보았다. 또한, 유아들과 미리 정한 레스토랑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실천하였다.

13일은 우송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 투썸 플레이스에서 간식으로 빙수를 먹었으며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체험해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 캠프



며칠 동안 유아들이 각자 보고 싶은 영화를 투표한 뒤 2013년 8월 16일에 다함께 신나는 방에 모여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그동안 약속을 잘 지킨 상으로 받아 모아왔던 코인

들로 팝콘, 요구르트, 소시지 등을 사서 영화를 보는 동안 먹을 수 있었다. 투표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영화를 본 이번 활동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활동으로써 유아들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우리들의 이야기

어린이집 아르바이트



2-A 김미정 학생

교수님께서 여름학기와 방학동안 법원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얘기를 말해달라는 말씀하셨다.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생활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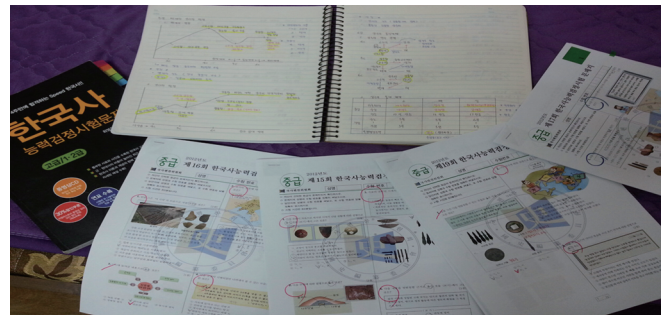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로 갔기때문에 청소를 하거나 텃밭에 난 열매를 따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교구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을 했다.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점점 적응이 되면서 교구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재미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운 좋은 경험 이었던 것 같다.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2-A 박지원 학생

나의 세 번째 방학이 찾아왔다. 2학년이 된 만큼 이번 방학은 휴식을 취하기보다 나의 역량을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두어 보람차게 보내고 싶었다. 따라서 이번 방학 목표는 임용고시 자격 요건인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체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먼저,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EBS의 '최태성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강의를 하루 적게는 3강, 많게는 10강씩 약 열흘 동안 들었다. 원래 역사라 하면 치를 떨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했으며 첫날부터 너무 많은 양을 알게 되었고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절망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자격증을 탄다는 생각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강의를 다 들은 후,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며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시간이 짧았던 만큼 점수는 높지 않았지만, 중급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나의 몸에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사 자격증 시험 준비와 더불어 운동을 꾸준히 하였다. 첫 주는 빠른 걸음, 2~3주는 줄넘기, 4주는 댄스로 체력을 키웠다.

이번 방학을 통해 목표의 중요성을 느꼈다. 처음으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 목표를 위해 매일 조금씩 해야 할 일을 지키는 나 자신을 보면 뿌듯하였다.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청춘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나가는 시간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그 열정을 다하고 점점 발전해가는 학생이 되어야겠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유리 김예솔 김지윤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